

韓國의 新聞 데이터베이스

Korean Newspaper Database Industry

宋 祐 天*
(Song, Woo Chun)

抄 錄

컴퓨터와 通信의 結合으로 비롯된 情報·通信의 革命은 사회 전반에 걸쳐 構造的인 變化를 일으키고 있다. 특히 기존의 매스 미디어들은 다양한 새로운 미디어와 情報通信技術의 등장으로 製作 및 傳達過程은 물론 社會的 機能과 役割에 이르기까지 근본적인 變化를 체험하고 있다. 新聞의 데이터베이스事業은 印刷過程은 물론 蒐集된 情報의 배달과정까지가 이러한 새 技術에 의해서 電子化됨으로써 可能해진 새로운 領域이라고 볼 수 있다. 이 글에서는 韓國新聞들이 개척하고 있는 이 새로운 事業領域의 現況을 先進 美·日의 경우와 비교해 보고 韓國的 現實에서의 問題點과 可能性에 대해서 간단히 고찰해본다.

ABSTRACT

Telecommunication revolution, which was triggered by the convergence of computer and telecommunication technologies, is changing the fundamental fabrics of industrial society. Especially, mass media of our society are forced to face the changes in both their production and distribution processes because of these emerging new technologies. News database industry is an area of new business opened by those technologies which made physical processes of newspaper production and distribution electronic. In this article, the status and trend of Korean newspaper database industry is described in comparison with those of the U.S. and Japan, and the difficulties to overcome are briefly discussed.

* 中央日報 데이터뱅크局, 新聞放送學 博士.

I . 뉴미디어의 特性과 新聞데이터베이스

1 . 뉴미디어의 特性

Videotext , 衛星放送, 케이블 텔레비전 등 새로운 미디어의 급격한 등장으로 “革命”이라고까지 불리워지기도 하는 變化가 가능했던 가장 根本的이고 중요한 技術的革新은 문자와 숫자는 물론 音響과 映像을 망라하는 人間의 모든 커뮤니케이션 심벌을 “0”과 “1”의 2진법 디지털 신호로 표현할 수 있는 電子技術(集積回路)의 개발에서 비롯되었다고 할 수 있다. 이 새로운 技術의 開發로 숫자와 文字 情報를 전달하던 미디어인 印刷媒體와 音聲과 映像信號를 전달하던 電波媒體 사이에 있었던 確연했던 구분이 사라졌고, 대신 컴퓨터와 通信衛星, 光纖維 등을 복합적으로 利用하는 새로운 미디어들이 급속히 등장하게 됐다.

다시 말한다면 新聞과 圖書 또는 映畫와 텔레비전이라는 서로 다른 製作 및 傳達方法을 사용하던 별개의 미디어들이 새로운 심벌 프로세서(symbol processor)인 컴퓨터에 의해서 구분없이 처리되어졌고, 또 이렇게 컴퓨터로 處理된 커뮤니케이션 심벌들은 通信衛星, 光케이블 등의 通信技術을 利用해 거리에 구애없이 즉시 傳達되도록 된 것이다. 이러한 變化는 情報의 記錄, 保管, 傳達의 전과정에 革新的인 영향을 미쳤고, 新聞 역시 이 새로운 技術들을 受容, 變化에 적응하게 됐다.

2 . 新聞과 뉴미디어

심벌 프로세서인 컴퓨터가 제일 먼저 變化를 일으킨 것은 新聞의 製作部門이다. CTS (Computerized Type-setting System)라고 불리워지는 컴퓨터化한 일괄공정으로 구텐베르크 이후 오늘에 이르기까지 印刷媒體의 근간이 되어왔던 활자가 필요 없어졌고, 따라서 新聞社에서 납이 사라지게 됐다. 기사는 기자들의 워드프로세서에 의해서, 또한 寫眞이나 圖案 등의 이미지는 스캐너에 의해서 입력되어지고 이렇게 入力된 記事와 圖形은 VDT (Video Display Terminal)에 의해서 편집되어지는 새로운 方法으로 新聞社 工務局의 주요 부문이었던 주소, 문선, 조판, 연판 등의 工程이 모두 컴퓨터에 의해서 이루어지게 됐다.

이러한 印刷以前까지의 工程의 電算化를 때로는 電子出版이라고 부르기도 하나, 보다 넓은 의미의 電子出版은 CTS로 컴퓨터에 入力된 情報를 公衆通信網(電話)

과 컴퓨터 또는 케이블 텔레비전의 케이블과 컴퓨터를 이용해 電子的인 方法으로 독자에게 傳達하는 전과정의 電算化를 의미하기도 하는데 新聞데이터베이스는 바로 이 全過程의 電算化에서 決定的인 役割을 하게 된다.

3 . 新聞 데이터베이스의 出現

新聞製作過程의 電算化는 일반적으로 人力, 設備投資 등의 經營效率化 側面에서 추진되어져 왔지만 CTS는 이러한 直接的인 필요 이외에 몇가지 2次的인 效用도 발생시킨다.

첫째로는 制限된 지면으로 인해 掲載되지 못해 廢棄되어지는 기사로 인한 浪費를 줄일 수 있다는 점이다. 記者直接入力方式으로 기사가 CTS컴퓨터에 入力될 경우 또한 이렇게 入力된 記事가 별도의 컴퓨터에 옮겨져 보관될 경우 印刷되지 않은 기사라도 모두 보관되어지게 된다.

두번째로는 製作支援을 위한 資料의 處理, 保管, 檢索이 훨씬 편리, 신속해진다는 점이다. 印刷된 新聞을 제본하고, 다시 주제별로 스크랩해서 보관해 인덱스카드로 檢索하는 方法보다 製作支援機能을 強化시켜 줌으로써 보다 競爭力있는 新聞을 만들 수 있게 된다.

마지막으로 중요한 점은 이렇게 保管되어지는 資料는 公衆通信網의 擴大와 케이블 TV의 증가와 함께 일반에 대한 販賣가 가능해짐에 따라 追加의 收入源을 확보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다. 또한 證券, 外貨, 企業 등의 特화된 情報를 즉시 입력해 동시에 傳達하는 on-line, real-time 서비스 등은 新聞社가 손쉽게 넓혀갈 수 있는 새로운 事業領域이 되어 新聞社의 데이터베이스는 날로 競爭이 심해지는 新聞事業 多角化를 위한 발판이 되게 된다.

이러한 데이터베이스를 利用한 新聞의 電子的 發行은 두가지 점에서 인쇄되어 배달되는 新聞과 다른 점이 있다. 그 첫째는 速報性으로서 하루에 한번, 또는 두번 발행되는 신문보다 훨씬 빠르게 소식을 전할 수 있다는 것이고, 또 하나는 커뮤니케이션의 雙方向性으로서 독자가 능동적으로 필요로 하는 情報를 선택해서 볼 수 있게 해 준다는 점이다. 지금까지의 일방적이었던 매스컴의 시대에서 독자가 원하는 때와 場所에서 필요로 하는 情報를 선택해서 볼 수 있게 해주는 보다 자연스러운 형태의 커뮤니케이션 시대로 전환하게 된 것이다.

Ⅱ . 外國의 新聞데이터베이스

1 . 美國의 경우

Videotext 또는 Videotex 등으로 불리워지기도 하는 활자와 종이가 필요치 않은 新聞發行의 새 영역을 처음으로 개척한 것은 美國의 여러 新聞社들이었다. 1970년 초 뉴욕타임스가 NYTIS (New York Times Information Service)를 설립한데 이어 월스트리트 저널은 DJNR(Dow Jones News Retrieval), Knight-Ridder는 Vu-Text, 가네트는 USA Today Update 등을 設立해서 公衆電話網이나 케이블 텔레비전의 회선을 利用한 PC通信을 통해서 蓄積된 情報과 뉴스를 供給하기 시작했다.

한 資料에 의하면 10여년이 지난 후 1981년부터 1984년까지 4년동안 新聞社를 중심으로 한 데이터베이스가 9種에서 280種으로 증가했고 그 밖의 다른 데이터베이스를 포함하는 DB保有會社가 전반적으로는 62個社에서 200個社로, 또한 種類는 368種에서 1,650種으로 급격히 증가됐다.

2 . 日本의 경우

전 제작공정의 CTS化는 美國보다 앞서서 日本에서 시행되었으나 데이터베이스事業은 美國에 비해 10여년 늦게 시작되었다고 볼 수 있다. 1980년대에 들어서면서 日本經濟新聞을 선두로 大新聞社들인 朝日新聞, 讀賣新聞, 毎日新聞 등이 CTS化를 完了하고 본격적인 記事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해 오고 있다.

日本經濟新聞은 NEED-IR (Nikkei Economic Electronic Databank System-Information Retrieval)을 1987년에, Nikkei Telecom을 1985년에 상용화했고 朝日新聞이 HIASK(HI Asahi Shinbun Kiji Database)를 1985년에, 讀賣新聞이 YOMIDAS (The Yomiuri Shinbun Database System)를 1986년에 설립했고, 그 밖에 日本化學工業日報 등 特殊新聞과 地方紙들도 활발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한 예로서 商業적으로 定着段階에 들어선 日經 Telecom은 최근 연 30% 이상 성장하고 있으며 1990년 9월 현재 약 20,000여 회원을 확보하고 있다.

Ⅲ . 韓國의 新聞데이터베이스

韓國의 新聞들이 새로운 미디어들과 이들을 활용하는 事業에 관심을 갖기 시작한 것은 최근의 일이며 따라서 아직은 미미한 形편으로 構築準備 또는 着手段階에 불과한 실정이다. 몇몇 中央言論社인 中央, 朝鮮, 東亞日報 등이 製作工程의 CTS化를 추진하고 있고 또한 中央日報, 韓國經濟新聞, 每日經濟新聞에서 별도로 入力된 記事資料를 이용해 뉴스速報, 人物情報 등을 自體構築하여 공급하면서 몇몇 外國新聞社들의 데이터베이스를 普及하는 役割을 하고 있다.

또한 韓國言論研究院은 國家基幹電算網 계획의 일환으로 言論製作支援을 위한 非商業的 目的의 新聞記事 데이터베이스인 KPI Newsbase 를 1987년부터 構築, 현재 각 언론기관에 무료로 提供하고 있다. 아직은 初期段階에 불과하나 점점 열기를 더해가는 言論各社의 데이터베이스現況, 推進計劃을 살펴본다.

1 . 中央日報社(JOINS)

國內에서는 中央日報가 선두주자로 데이터베이스 基盤構築에 착수해서 1975년 調査資料室을 實務主管部署로 선정 발족했으며, 1976년에 News Thesaurus 製作에 착수해 1980년에는 「中央 IR記事 인덱스」를 간행했다. 본격적인 投資가 시작된 것은 몇년의 공백기가 지난 후인 1988년에 데이터뱅크局을 設置하고 中型 컴퓨터인 IBM 9377-80을 導入해서 自體開發 데이터베이스인 JOINS(Joong-ang Online Information & News Service)를 構築하기 시작했다.

JOINS에서는 人物情報, 文獻정보를 入力해서 자체 데이터베이스를 만들었고, 1989년 5월부터는 中央日報와 中央經濟新聞의 뉴스기사를 新聞印刷 이전에 入力하여 無料情報인 「뉴스速報」와 有料情報인 「비즈니스 뉴스」로 供給하고 있으며, 또한 美國 월스트리트저널의 DJNR과 제휴, 일반에게 供給하고 있다.

별도로 入力되고 있는 현재의 記事데이터베이스는 1992년 製作工程의 CTS化가 이루어지면 自動入力시스템으로 전환할 예정이며 본격적 구축에 대비해서 主題檢索을 위한 시소러스開發을 進行중이다. 料金體制는 일반 개인 이용자를 위한 無料情報와 機關, 企業會員을 위한 有料서비스로 二元化되어 있으며 뉴스速報版도 새로운 미디어事業의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다.

2 . 韓國經濟新聞(KETEL)

韓國經濟新聞은 데이터베이스 구축보다는 速報傳達을 위한 Telepress 로 출발, 1986년 말부터 事業을 시작해 DACOM에서 提供하는 천리안Ⅱ의 프로그램 供給者로 시작해서 1988년에 獨自的 한글DB를 構築하기 시작했고, 일반에 보급을 시작한 것은 1989년부터였다.

현재 약 2萬의 無料會員을 확보하고 있으며 英文뉴스 DB를 開發해서 有料化했고, 또 外國의 데이터베이스에 이를 供給하고 있기도 하다. 自體 데이터베이스 構築에는 좀 늦은 편이나 CTS化와 함께 데이터베이스事業을 연계시켜 나갈 計劃이며, VAN事業 등으로 다양화해 나갈 것으로 보여지고 있다.

3 . 每日經濟新聞(MEET)

每日經濟新聞의 Telepress 인 MEET는 1987년부터 構築에 착수, 1990년 3월 부터 DACOM-NET를 통해 情報를 提供하고 있으며 또한 자체의 단말기를 통해 日經 Telecom과 함께 供給되고 있다.

한편 新聞社는 아니지만 聯合通信이 國際金融, 外換情報 데이터베이스인 Tele-rate를, Reuter Monitor 는 支社를 설립해 專用端末機를 통해 보급하고 있다.

4 . 其他 新聞社

CTS를 본격 추진중인 朝鮮日報와 또 곧 推進할 計劃을 갖고 있는 東亞日報는 CTS化 이후부터 자체 DB開發計劃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으나 현재로는 韓國經濟新聞의 KETEL과 연결된 端末機를 통해 自社의 기사를 入力해 KETEL의 通信網을 통해 무료로 뉴스를 제공하고 있다.

이상 간단히 살펴본 바와 같이 우리나라의 新聞記事 데이터베이스는 아직 초기의 단계에 조차 제대로 도달하지 못한 상태이다. 새로운 미디어에 대한 관심과 열기는 높지만 그 추진상태가 미흡한 것은 몇가지 문제점들이 있기 때문이다.

IV . 韓國 新聞데이터베이스의 問題點

1 . 認識의 不足

우리나라에서는 新聞記事 데이터베이스를 비롯한 각종 정보가 바로 “財貨”라는 개념이 아직 확실하게 잡혀 있지 않다. 知識과 情報은 무료라는 생각이 아직 支配的이어서 事業收益을 전제로한 投資가 이루어질 수 없는 환경이므로 다양하고 專門化된 良質의 데이터베이스를 構築할 수 있는 興件이 되어 있지 않고 따라서 本格的인 投資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2 . 大規模의 投資와 長期間의 資本懷妊

興件의 未成熟과 함께 投資를 어렵게 하는 또 다른 원인은 데이터베이스 構築의 전제인 CTS化와 데이터베이스 자체를 위한 設備投資의 規模가 엄청나다. 200 億원 前後의 投資가 필요한 CTS와 20 ~ 30 億원의 데이터베이스 設備投資를 감당할 新聞社는 지극히 제한된 숫자 밖에는 있을 수가 없는 것이 우리의 실정이다. 또한 投資規模에 반해 事業收益은 장기간이 지난 후에나 발생해서 대부분 10년 이후에나 黑字로 돌아서는 外國의 경우를 볼 때 우리의 현실에서 投資展望은 더욱 어두워질 수 밖에 없다.

3 . 專門人力의 不足

專門人力의 養成도 投資만큼 投資不足과 분리시켜서 생각할 수는 없으나 Key-word 選定이나 시소러스의 開發 등 데이터檢索에 필수적인 기능을 開發할 訓練된 人力의 不足 역시 投資가 이루어진다고 가정하더라도 부딪쳐야 할 어려운 문제점이다.

4 . 政策不在 및 一貫性 缺如

마지막으로 지적할 수 있는 點은 情報産業 育成과 支援을 위한 합리적이며 일관된 政策의 缺如라고 할 수 있다. 그 한 예로서 電話料金 度數制를 들 수 있다. 新聞記事 데이터베이스를 비롯한 商業데이터베이스의 성공여부는 情報를 效率的, 經

濟的으로 전달할 수 있는 通信網施設과 적절한 料金體系가 기본적 선결요건이나 얼마전 채택된 電話料金 度數制는 PC通信의 活性化에 결정적 장애가 되고 있다. 또한 DACOM은 回線事業과 情報事業을 함께 함으로써 데이터베이스 事業者들은 시작에서부터 不公正한 競爭을 할 수 밖에 없다는 점 역시 政策不在 및 一貫性의 缺如로 초래된 결과로 볼 수 있다.

보다 높은 次元에서는 政府의 言論政策 역시 새로운 미디어의 發達과 受容에 저해의 요인으로 작용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할 수 있다. 多樣化되고 專門化된 高度 情報産業이 사회와 국가발전의 원동력이라는 데에 認識을 함께 한다면 言論社들과 情報事業社들이 보다 자유스럽게 垂直的, 水平的 分化를 할 수 있도록 근본적으로 시정돼야 할 것이다. 新聞, 放送, 情報産業의 경계를 무의미하게 하는 새로운 技術은 눈부시게 발전하고 있으나 우리의 理念과 制度 역시 이러한 변화를 따라가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많은 의문의 여지가 있다.

技術의 無批判的 受容이나 技術의 發達이 바로 사회의 발전이라는 사고방식에는 분명히 한계가 있고, 또 경계해야 할 危險의 要素도 있다. 그러나 변화하고 있는 현실에 바탕을 두지 않은 理念이나 制度를 고집하는 것은 오늘날과 같이 급변하는 世界的 環境에서 고립과 낙오를 자초하는 가장 확실한 길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